

# 고흥군, 여름철 급식 안전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소규모 급식소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식중독 사전 차단 총력



고흥군이 소규모 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3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고흥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재남)와 함께 관내 소규모 급식소 45개소의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식중독의 종류와 주요 증상, 예방법, 조리실 위생관리 요령 등 필수 내용을 교육했으며, 2부에서는 자외선 살균기의 기능과 올바른 사용법, 청소 방법, 고장 시 대처 요령 등 기기 관리 사항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급식소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유빈 기자

보성, 대한민국 민족음악제 '별교칸타타' 개최

해남군, 장마철 수인성 감염병 주의 당부

보성군은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채동선음악당에서 제7회 대한민국 민족음악제 '별교의 교향시 별교칸타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 『태백산맥』 10권의 서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공연으로, 소설의 핵심 내용을 10개의 음악 테마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마지막 테마를 더한 총 11개 주제로 재구성했다.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대표 작품이 함께 연주되며, 그의 음악 세계와 별교의 지역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문화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또한 배우 지정남이 모노극 형식으로 참여해 전라도 사투리와 섬세한 연기를 통해 소설 속 인물들의 삶과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연극적 서사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은 본격적인 장마철과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기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625건)와 감염 사례 수(1만3,935명)가 과거 4년 평균 대비 각각 19.1%, 3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5~9월)에는 살모넬라균(38.2%)과 병원성대장균(11.8%)에 의한 감염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남군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소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예방수칙은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 씻기 ▲조리도구 소독 ▲설사 증상 시 조리 금지 등이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413명

장흥군,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시작 "청년 성장 지원"

## 완도군, 휴게소에서도 완도 전복 즐기세요!

진도군(군수 이재각)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진도군 수산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5년 기준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4년에 4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5년에는 3퍼센트(%) 증가한 413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군면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신면 150명, 임회면 31명, 군내면 22명, 조도면 15명, 지산면 7명, 진도읍 3명 순이었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양식어업 종사자 362명(87.7%), 가공유통 분야 25명(6.1%), 종자생산 13명(3.1%), 어선어업 종사자가 13명(3.1%)이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하계 지역출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역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군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근무수칙, 복무 및 안전교육,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무 부서별 주요 업무와 근무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군청 실과 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과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사회와 지역행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김정근 기자



완도 전복을 넣어 만든 어묵을 곁들인 우동과 라면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함안휴게소 등 휴게소 4개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풀무원푸드엔컬처와 협업하여 개발한 완도 전복 활용 휴게소 메뉴를 선보이고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했다.

메뉴는 휴게소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메뉴에 전복을 활용한 총 9종으로, '전복을 넣어 만든 어묵을 곁들인 우동과 라면', '전복으로 만든 매운 어묵 우동', '전복을 넣은 순두부찌개', '전복을 넣은 돼지 맑은 보양탕' 등을 행사 기간 중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완도 전복을 알리기 위한 전복 버티구이 시식 행사도 진행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판촉·시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외식 트렌드를 확인했다.

완도 전복을 활용한 휴게소 특화 메뉴는 김제·오수·함안·공주 휴게

소를 비롯한 전국 1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군은 메뉴 판매가 본격화되면 연간 약 66톤 이상에 달하는 전복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최근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복 소비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량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과 판로 확대를 통해 완도 전복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계속하겠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